



| | |
|--------------|-------------------------------------|
| 제목 | 터키 메블라나 복식 분석과 현대 패션디자인에의 응용에 관한 연구 |
| 발행언어 | 한국어 |
| 발행처 |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2) |
| 발행일 | 2004. 9. 30. |
| 저자 | 이희현, 이명옥 |
| 출판도시 | 서울 |
| 페이지수 | 111-121 |
| ISBN 또는 ISSN | 1229-7240 |

내용 요약

이 논문은 터키 메블라나(Mevlana) 복식의 종교적 배경과 형태적 특성 및 상징을 알아보고, 현대 복식의 디자인에 나타난 이슬람적인 요소들과 메블라나 복식의 디자인적 요소들을 이용한 여성복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다.

메블라나는 이슬교의 이단 종파인 수피즘을 신봉하는 종교집단 중의 하나로 춤과 시로 종교적 명상을 하고 이를 통해 영적인 구원을 얻는다. 메블라나의 종교행위 중 중요한 의식인 춤은 세마(Sema, 하늘)의 모든 동작, 춤의 의식, 춤을 위한 의상에는 종교적 의미와 상징이 담겨 있다. 세마의식에서 보여지는 복식은 터키 전통복식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나 터키 전통복을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한다. 이들의 옷은 춤을 추기 위한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 있고, 전통복과는 달리 스커트의 밑단이 상당히 넓어 춤을 추는 동안 움직이는 물결 모양으로 부드럽게 펄럭이는 원의 형태를 나타내게 한다. 짧은 볼레로형 자켓도 팔과 손의 동작을 위해 여밈을 한쪽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은 자연스럽게 나부끼는 스타일이 된다. 춤 복식은 그 하나하나가 자신의 수의라던가 비석 등 죽음과 연관된 상징을 갖는다. 그들에게 있어 복식은 단순한 일상생활을 위한 보호용, 장식용 덮개의 의미를 넘어 죽음을 설명하고 영혼을 믿고 이와 정신적으로 교류하는 표현의 도구인 것이다.